

“올해 수출 9000억달러 돌파 예상... 사상 첫 日 추월 기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日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 초반 반도체 외 타 산업 증가율 견고 中企 수출도 10% ↑... 고무적 현상 AI 기반 제조혁신·지역성장 중심 산업·통상·자원·지역 유기적 연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액 9000억 달러(약 1230조 원)를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의 최근 수출 전망과 관련해 “9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며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규모를 이기는 관계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연간 수출액은 7000억 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우리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달성하면 기존의 홍콩(7536억 달러), 일본(7383억 달러), 이탈리아(7265억 달러) 등을 모두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으로 도약한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무역수지가 상·하반기 고른 흑자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인 21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최근의 수출 호조가 반도체

에만 의존한 착시효과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 증가율이 워낙 압도적이라 다른 산업이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타 산업 수출 증가율도 13.8~15% 수준으로 매우 견고하다”며 “반도체를 제외하고 15% 수준의 증가율은 좋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기업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고무적인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등이 중소기업의 소비재가 뚝

수 있는 시장으로 분류된다. 세계는 넓고 수출할 곳도 많은 만큼 하반기를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산업·통상·자원·지역을 유기적으로 엮겠다는 취지로 ‘산업정책’ 대신 ‘산업전략(策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우리 산업과 수출을 축구에 비유하며 “축구를 이기려면 공격만 하든지 수비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비가 격적이다.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자원 안보가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입 다변화 이슈에 있어서도 광물 등 이런 분야도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

각하고 있다”며 자원 및 산업 안보의 중요성을 수비에 비유했다. 또 “축구를 이기려면 골도 많이 넣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스트라이커는 반도체 딱 하나”라며 “혼자서는 안된다. 두세명의 킥 플레이어가 있어야 한다.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산업 만들기엔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를 연결할 미드필더 역할로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 브랜드인 ‘맥스(M.AX·제조AI얼라이언스)’와 ‘지방(지역 성장)’을 꼽았다. 김 장관은 “미들맨도 필요한데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2월 산단 AX 분과를 신설하고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한 만큼 하반기에는 지역과 맥스를 중심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제조 AI의 확산을 위해 개별 기업이라는 ‘점’이 모여 산업 생태계라는 ‘선’과 ‘면’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안동 막걸리 제조업체의 AI팩토리 도입 사례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막걸리 발효 과정을 사람이 24시간 감시해야 했는데, AI 센서를 붙이니 사람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도울 수 있는 기술적 ‘점’들을 전국 산단에서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대전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을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성심당의 경우

기름 냄새 가득한 튀김 공장 등의 고된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면서 기존 인력은 더 쾌적한 곳으로 재배치됐다”며 “AI 도입은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을 로봇 매니저로 재교육하고 전환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맥스 카리반’과 ‘맥스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장보고함 12척 규모)과 관련해서는 “(경쟁국인)독일은 아직 설계 중이지만 우리는 실체가 있고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다”면서도 “캐나다가 전통적 우방인 유럽(나토)과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순신의 12척 배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전자과업 사태와 스튜어트스 코드 적용에 대해서는 “삼성이 지금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시기가 반도체 경기를 이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잘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유가 대응책인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시한에 대해서는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돼 유가가 90달러대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면 해제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리스크관리 파트너’ 역할에 충실할 것”

김태욱 한전 상임감사위원

“무거운 책임감·깊은 사명감 앞서 문제 본질 들여다보고 개선 책임 내부 출신 명예 걸고 헌신하겠다”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취임사에서 “상임감사위원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한국전력에 다시 서게 되어, 반가움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이 앞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전력의 새로운 감사 지휘봉을 잡은 김태욱 상임감사위원(사진)이 공식 취임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한전 내부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개혁과 혁신을 예고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김태욱 상임감사위원이 전날(27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아주대학교 전기공학 학과를 졸업하고 한전에 약 35년간 재직하며 기술기획부장, 광주전남본부장, 전력그리드본부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퇴직 후에는 대한전기학회 협동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폭넓은 현장 경험과

그러면서 “내부를 잘 안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책임의 선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한전이 국가 기간산업과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회사 내에 남아 있는 일부 대만과 비효율, 조직 간 벽, 자원 배분 왜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진의 판단을 존

중하되, 독립적 위치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내하는 리스크관리 파트너’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열심히 일하면 면책되고,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면 감사 받는다는 말이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확증편향적 시각과 과도한 자료 요구, 몰아붙이기식 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사전 컨설팅 중심 감사, 치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솔루션 감사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상임감사위원은 “한전은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새길을 만들어 온 저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내부 출신이 상임감사를 맡으니 조직은 더욱 당당해지고, 혁신은 한층 더 내실있게 추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전 출신의 명예를 걸고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이 초청한 주한 대사관 20곳의 직원 및 가족.

농협중앙회, 주한대사관 DMZ 초청 행사

20곳 직원·가족 등 총 36명 참석

농협중앙회가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농협 및 비무장지대(DMZ)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농협의 주한 대사관 초청 견학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이 행사에는 주한 대사관 20곳의 직원 및 가족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탈리아와 코스타리카, 케냐, 페루, 태국 등 5개국 주한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농협은 그간 농업인의 삶의 질 향

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기능 및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농협회장과 환담한 뒤 강원 철원 김화농협을 찾았다. 현지에서 마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또 DMZ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해 접경 지역의 생태·평화적 가치와 지역농업 환경을 체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내은행 전용 ‘해외사업금융보험’ 기획

무보, ‘신성멜타테크 태국 법인’에 3000만달러 운전자금 ‘1호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금융기관과 협업체 국내 중소·중견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나선다.

무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은행 전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특별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우리기업의 해외법인이 시

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던 기존 ‘해외사업금융보험’을 국내은행의 수요와 금융환경에 맞춰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해외 여신 시장은 낮은 금리를 앞세운 외국계 은행들이 주도해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규모와 신용이 취약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보는 이를 해소하고자 국내은행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였다. 보험료할인·한도

우대·심사 간소화 등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이번 특별상품 출시에 발맞춰 지난 27일 전자부품 제조사인 신성멜타테크 태국 법인에 3000만 달러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은 중소·중견기업 ‘1호 지원’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해외 현지법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추세”라며 “국내은행과의 밀착 공조로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공사, ‘바다주간’ 해양환경 정화 나서

‘해녀와 바다’와 쓰레기 1490kg 수거

부산항만공사(BPA)가 바다의 날(5월 31일) 및 바다주간(5월 20일~5월 31일)을 맞아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특히 지역 해양정화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힘을 모았다. 수중·수변·연안을 아우르는 공동 환경정화 활동에서, 이들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의 중

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뒀다.

공사는 지난 16일 지역 해양정화단체 ‘해녀와 바다’와 함께 별빛수로 일대에서 수초 및 수중 쓰레기 1490kg을 수거했다.

22일에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설공단 임직원 및 가족, 일반 시민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북항 친수공원 및 별빛수로 일대에서 ‘EM 흙공 던지기’와 ‘플로깅’ 활동을 병행하며, 수질 개선과 수변환경 정화에 나섰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